



일본 경제산업성, 변리사 대상 첨단기술연구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지적재산권 분야의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는 첨단기술분야에 있어서 변리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산업성 및 특허청의 공업소유권 연구소를 변리사의 연수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공업소유권 연구소의 첨단분야의 기술연구를 강화해, 변리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행하는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특허청 직원 이외에도 이 연구소의 일부 연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령을 개정한 것에 이어, 변리사를 지향한 첨단기술분야의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소규모의 연수는 순차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며, 자금 수당이 필요한 것은 2002년도 예산에 요구된다.

국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라이프사이언스와 IT 등 중점분야에서 지적재산의 창조부터 권리의 보호와 활용, 분쟁해결까지 '지적 창조 사이클'을 실현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것에는 변호사와 변리사라고 하는 지적재산 전문서비스가

필수적이지만, 특히 라이프 사이언스 등의 중점 분야에 있어서 변리사 수의 부족은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산업성은 변리사를 대상으로 첨단분야의 기술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서 전문성이 높은 변리사의 양성을 꾀하는 목적으로 기술연수에 특허청의 공업소유권 연구소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경제산업성은 조직령을 개정해서, 지금까지 특허청 직원에 대상을 한정하고 있던 공업소유권 연구소의 연수에 일부분의 외부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이어, 변리사를 대상으로 하는 첨단기술분야의 연수에 대한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 조기에 구체적 내용을 모아 2002년도 예산요구에 반영시킨다. 단지, 이 연구소의 현재의 예산과 인원으로 무리인 소규모 기술연수에 관해서는 준비를 진행해 가능한 것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출처: 일본경제신문

지적재산권과 사적권리의 충돌: WHOIS 데이터 강화



지난 12일에 열린 '사법, 인터넷,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관한 하원법사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산업계 단체대표들은 의회가 인터넷 도메인 이름 판매자들에게 웹사이트 소유자의 더 나은 공적기록을 유지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주소

부여 당국에 의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IP) 소유자들을 대표하는 두 집단의 대표자들은 이 소위원회에서 강력하고 정확한 WHOIS 데이터베이스가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절도를 방지할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WHOIS 데이터는 책임성을 서서히 주입시키고 있다”고 Interactive Digital Software 협회(IDSA)의 지적재산권 정책 부회장 Stevan Mitchell은 이번 청문회에서 의원들에게 언급했다.

인터넷 주소 판매자들이 유지하는 WHOIS 데이터베이스는 주어진 판매자들에 의해 기록되는 모든 도메인 이름의 소유자에 관한 기본적인 접촉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공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부 사적권리 주창자들은 그러한 기록의 공개적 성격이 인터넷 주소 보유자들의 사적권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일부 경우, 스토크와 범죄자들에게 주소를 이용 가능하게 해 주소보유자를 위협에 빠지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은 WHOIS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이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더욱 정확하고 강력하게 작성되기를 원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주소공간 할당기관(아이캔 : ICANN)은 사람들이 도메인 이름을 구입할때, 그들의 접촉 정보를 제공하도록 원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웹 사이트 소유자들은 익명으로 남고 사 거짓정보를 제출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이러한

규칙을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Mitchell과 국제 복제방지연합(LACC) 회장 Timothy Trainer는 이날 청문회에서 계약을 강제하기 위해 ICANN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소위원회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한편, 이번 이슈의 다른 측면에서, 전자 사적권리 정보센터(EPIC)는 소위원회에 인터넷 주소를 알기 위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를 비난하는 성명을 제출했다. EPIC는 익명성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청문회의 증언에서 Mitchell과 Trainer는 책임성이 인터넷 주소 보유자의 개인적 사적권리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적권리에 대한 관심을 무시했다. Trainer는 정책과 접근방법과의 현행 균형이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위원회 위원장인 Howard Coble(공화당, 노스캐롤라이나)도 개회사에서 인터넷이 성장하고 정책이 발달하면서, 대중들은 강력하고 동태적인 WHOIS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가능성에 의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청문회 후에 Mitchell과 Trainer의 자문에 따라 생각이라면서 ICANN에 이번 이슈에 대한 서신을 보낼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 비행기 헬리오스의 시험 비행

지난 7월 200여명의 구경꾼이 지켜보는 가운데 JASA가 개발한 1,500만 달러짜리 태양광 비행기 헬리오스가 최고 상승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 하와이에서 비행했다. 6만2천 개의 태양전지에서

전기를 얻어 동력원으로 하는 무인 원격조정 비행선인 헬리오스는 오전 8시 5분 하와이의 해군 태평양 미사일 기지에서 이륙했다.

헬리오스는 시속 20마일로 활주로를 따라가다





가 이륙직전 247피트 길이의 휘청거리는 날개를 위로 하면서 가볍게 땅을 스치며 날아올랐다. 이날 헬리오스는 인구밀집 지역에 추락하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태평양 상공을 주 항로로 하는 경로를 날도록 계획됐다. 헬리오스는 부메랑 모양의 날개를 가졌는데 이날 14~16시간의 비행동안 1만 피트의 구간을 선회하는 실험을 했다.

헬리오스는 7만 피트 상공까지 올라갈 계획인데 10만 피트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프로펠러기가 올라간 최고 높이는 지난 1998년 헬리오스 계획의 전단계였던 패스파인더 플러스가 기록한 2만 피트이다. NASA와 헬리오스를 개발하기로 계약했던 에어로바이런먼트사는 지난 5일 시험비행을 계획했으나 기상악화와 컴퓨터의 오작동으로 이날로 비행을 연기했다. 헬리오스는 지난 1999년 캘리포니아의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한번 시험비행을 했다. 이때 헬리오스는 배터리만을 사용해 단지 1천 피트 밖에 상승하지 못했다. 헬리오스는 이후 태양과 바람 조건이 좋은 하와이로 옮겨왔으며 2,000평

방피트의 표면에 태양과 전지가 부착됐다. 태양광 전지가 약 40kw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헬리오스에 부착되어 있는 14개의 프로펠러 동력으로 사용된다. 2003년까지는 연료전지가 장착돼 태양이 없는 야간비행용 동력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헬리오스는 몇 달 동안이나 비행할 수 있게 된다.

헬리오스는 수선이나 과학장비 교체를 위해 육지로 내려오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 지점에 떠 있을 수 있어서 미래에는 인공위성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헬리오스를 원격탐사, 기상관측, 오존층 탐사, 기후변화 탐지 등과 같은 지구과학 연구에 사용할 생각이다. 헬리오스는 또한 수산물 탐사, 삼림 탐사, 폭풍 진로 탐지, 토네이도 혹은 화산 폭발 탐지, 농작물 수확 시기 탐색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헬리오스는 조용하게 비행하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헬리오스는 최고 고도에서 시속 약 200마일로 비행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 개발



미국 표준과학연구원의 연구원들은 현재 사용되는 기술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안정된 새로운 원자시계를 개발했다. 실험결과 1억년에 1초의 오차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주파수를 갖는 가시광선을 쓴다는 점이 다르다. 연구팀의 스코트 디담박사는 이 시계가 현재의 세슘을 이용한 원자시계보다 100배~1,000배의 정확도를 가질 수 있는 차세대 원자시계를 최초로 실증했다

고 말했다. 이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요하는 우주비행, 인터넷과 전기 분배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계는 지난 천년간 끊임없이 개발됐다. 1008년 중국에서는 하루에 약 100초의 오차를 갖는 물시계가 만들어졌다. 17세기에는 진자를 이용해 하루에 10초의 오차를 갖는 시계가, 1930년대에는 3일에 1초의 오차를 갖는 시계가 개발됐다. 특

정한 원자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파를 정확히 측정하는 원자시계가 개발됐는데, 과학자들은 1967년 Cs-133의 기저상태에 있는 두 에너지 준위간의 전이에 해당하는 방사선의 주파수가 9,192,631,770번 될 때를 1초로 정의했다. 지난 1995년까지는 1천5백만년에 1초의 오차를 갖는 원자시계가 나왔다. 가시광선은 마이크로파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지므로 더 정확한 시간 분해

능력을 갖는다. 디담박사 연구팀은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이 새로운 시계가 레이저 공진기와 연관된 수은 이온의 가시광선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 시계는 1초에 1천6백4십조 번 똑딱거린다. 이 시계는 기본적인 물리상수 측정, 고속 데이터 전송, 이 메일 전송, 위성의 정확한 궤도, 심 우주 여행, 우주선의 도킹 등에 이용될 수 있다.

(해외과학기술동향)

유엔 "도메인 무단점거자"에 대한 규제 강화 촉구 - WIPO



유엔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3일 (현지시간) 유명한 및 국제 조직들의 이름이나 명칭이 인터넷에서 오용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광범위한 규정을 만들도록 제안했다.

WIPO는 1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국가명, 일부 지리적인 명칭, 인종 단체, 의약 성분 등도 상관관계가 없는데 도메인 이름에 사용하는 소위 "도메인 무단점거자(cybersquatter)"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WIPO의 부사무총장인 프란시스 거리는 기자회견에서 WIPO 자체도 "도메인 무단점거자"에 의한 희생자라며 "우리는 정부들에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확장시킬 방법을 모색하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합의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새

로운 규정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호주 원주민이나 북미 아파치 인디언, 최근 southafrica.com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한 미국 업체와 문제가 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이라는 국가명, 프랑스 도시 코냑, 비아그라라고도 알려진 제품 실테나페닐(sildenafil) 등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WIPO는 현행 규정에 따라 분쟁 해결 시스템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영화배우 줄리아 로버츠, 가수 믹 재거, 축구팀 레알 마드리드 등에 대한 사용권을 도메인 무단점거자들로부터 당사자들에게 넘겨준 바 있다.

그러나 2년밖에 되지 않은 현행 시스템은 상표화되고 따라서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이름을 사용하는 도메인 이름에만 적용되고 있다.

출처 로이터인터넷

IBM研, 美 특허보유건수 최다





미국 IBM이 연구 개발에의 집중적인 투자로 연구소 성공신화를만들어가고 있다. IBM연구소는 미국내 최대의 특허건수를 보유해 중요한 싱크탱크 역할을 함은 물론 알찬 수익을 올려 모기업의 효자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IBM연구소가 지난 한해동안 미국 특허 2922개와 17억 달러의 짝짤한 특허수익을 거두며 기업연구소의 모범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1400여명의 대규모 박사급 인력을 확보하고 지난해만 연구개발(R&D)비로 52억 달러나 투자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렇게 잘 나가는 IBM 연구부문도 90년대 초에는 천덕꾸러기였다. IBM 특허기술을 잘 이용해 승승장구하는 휴렛패커드와 선마이크로시스템스 EMC등 경쟁사들을 보며 배만 아파할 뿐이었다.

하지만 93년 루 거스트너 최고경영자(CEO)가 취임해 '혁신'을 강조하면서 연구소는 든든한 후방부대로 자리잡았고 IBM이 주문형 마이크로칩의 최대 공급자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같은 성공 뒤에는 우선 경영시스템과 방법을 꾸준히 재창조해 연구자들이 실용적이고 수익으

로 이어질 작업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것이 주효했다.

특히 연구부문 책임자 급에는 IBM내 연관 사업의 실적이나 그 연관 사업운영자의 평가점수와 직결됐고 특허 개발이 IBM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문책을 각오해야 할 정도였다.

한편 펠로우로 지정된 연구진은 자유로운 연구 여건과 재정보너스 등의전폭적 지원을 받는 기업 문화도 큰 몫을 했다.

이를 두고 경쟁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IBM이야말로 연구소와 회사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하나의 모범을 완성했고 연구자들의 업적이 직접 인정을 받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최근 IBM은 연구부문의 책임자들이 주요 고객사들과 관계를 강조, 고객사를 끌어들이고 연구진들에게 트렌드를 알리는 일도 강화하고 있다.

이 덕분인지 지난해 IBM 총매출은 1% 남짓 늘어난 데 비해 연구개발 예산은 약 10% 상승했고 특허 라이선싱 수익은 그보다도 더 급증한 17억 달러에 이르렀다.

출처 매일경제

지적재산권 집중단속, 불법복제물 '분골쇄신'



지난달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최대 규모의 밀수 및 불법복제물(CD,VCD 등) 공개 소각이 있었다.

15대의 대형 분쇄기가 작동되면서 1,640만장의 불법복제물이 가루로 변하며 소각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밀수·불법복제 활동

이 매우 심각해 출판물 시장 전반에 걸쳐 형성된 어지러운 질서를 바로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소각된 밀수 불법복제물은 대부분이 올해 몇몇 세관에서 압수한 것들이다.

통계에 따르면, 1998~2000년 압수된 불법복

제CD는 모두 5,400만장이고, 올해 1월~8월에는 2,990만장이 압수되었는데, 그 중 만장 이상의 밀수 사건이 3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불법복제 단속이래 이번 소각활동의 진행은 중국정부가 '과학교육진흥국가' 라는 전략과 지적재산권의 보호의 차원에서 밀수품을 확실히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베이징의 경우, 불법복제물 판매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주로 규모가 비교적 작은 상품도매시장이나,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 육교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국내외의 불법판매업자들은 짧은 기간 안에 거액의 이윤을 남기며 계속해서 불법으로 밀수·생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밀수·불법복제 제품이 음악 및 영화관련 CD, VCD만이 아니라 도서출판 업계까지 뻗어 있어, 그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각 출판업계는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밀수·불법복제물의 낮은 가격으로 인해 중국학생들을 비롯해 중국주재 외국인 및 유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아, 불법복제 범죄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중국 당 중앙과 국무원은 밀수·불법복제품 제조 생산라인을 신고서, 신고자에게 최고 30만위안(한화 약 5,000만원)의 보상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활동은 사회악을 조장하고 국가적 경제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중국정부의 대응을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유지와 지적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중국이 세계, 특히 서방국가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출처 중국경제신문

발특2001/10

